

“재학생 가족 돕자” 동신대 군사학과 헌혈증 전달

3학년 서종현 학생 9세 사촌동생 ‘급성 백혈병’ 판정 자치회 주축 학년별 헌혈증 모금...3일만 102장 모여

“군인이 어려운 이를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큰 자부심입니다.”

동신대학교 군사학과 학생들이 재학생 가족의 급성 백혈병 소식을 듣고 헌혈증 모금 운동을 추진,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14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서종현(3학년·22) 학생의 13살 아래 사촌동생이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아 서울 아산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군사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이날 초·중·고 학생자치회를 주축으로 학년별 헌혈증 모금 운동을 펼쳤다.

한 사람이 많게는 16장까지 헌혈증을 기부했고, 총 23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3일 만에 102장

의 헌혈증이 모여 서종현 학생의 동생에게 빠르게 전달돼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통 백혈병 환자에게 혈액 공급을 위해 필요한 헌혈증은 200장 정도지만, 동신대 군사학과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절반 이상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동신대 군사학과 졸업생들은 지난 2020년부터 소위 입관 후 첫 월급을 전액 기부하는 장학금 릴레이와 해외파병 중 모은 수당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졸업생들의 후배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재학생들에게도 온전히 전파돼 어려운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결집력으로 똘똘 뭉치게 됐다.

헌혈증을 전달받은 서종현 학생은 “군사학과는 군기가 있는 학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오



류태용(왼쪽) 동신대 군사학과장이 3학년 서종현 학생에게 헌혈증을 전달하고 있다.

히려 다른 학과보다 선후배 관계가 돈독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로 뭉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의지가 크다”며 “이번에 헌혈증 도움이 컸으며 선배들의 마음가짐이 후배들에게도 전달돼 첫 월급 기부 릴레이에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류태용 동신대 군사학과장은 “재학생의 어린

9세 동생의 급성 백혈병 소식을 듣고 일단 헌혈증을 모아 전달해보자고 추진하게 됐다”며 “군사학과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감을 가진 군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주변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기 기자

17년간 ‘탈핵운동’ 국순군씨 전 재산 환경단체 기부 영면



탈핵과 에너지 전환 운동에 앞장섰던 광주환경단체 회원 국순군(사진)씨가 전 재산을 광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하고 영면에 들었다. 향년 60세.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국씨는 암 투병 끝에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세상을 떠났다.

국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광주환경운동연합을 정기 후원했으며 영광 한빛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고 대응 활동,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전국녹색당 탈핵위원장,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운영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 7월 암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국씨는 “광주환경연합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기부액은 광주 동구 소재동 주택과 임야 등 2억5천만원 상당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고인의 유산은 생태 전환 사회를 만드는 환경 운동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정 기자



목포소방, 전남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목포소방서는 “최근 2024년 전남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진압분야 1위, 생활안전분야 3위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전남소방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화재·구조·구급 등 기술 연마와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대회 종목은 화재진압, 구조진술, 구급진술, 화재조사, 최강소방관, 구급술기, 생활안전 7개 분야이며 22개 소방서 대표 선수들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겨뤘다.

화재진압분야는 '1·2차 화재진압'과 '고립소방관 구조' 2가지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지휘자를 포함해 6명의 팀원이 참여한 팀진술로 평가가 이뤄졌다.

목포소방서에서는 이광웅 소방경, 이석현 소방장, 김상수·이윤환·이진우 소방교, 김승민 소방사가 참여해 총점 20점 중 17.9점, 22개 관서 중 1위를 차지했다.

목포소방서 화재분야 출전팀은 소방청 주관 2024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전남도를 대표 출전한다.

박의승 목포소방서장은 “현장 활동과 훈련을 병행해 1위의 성적을 거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익힌 기술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강기정 시장 “통합돌봄 성과, 사회복지사 덕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광산구 하남스포츠파크 축구장에서 열렸으며 강 시장을 비롯해 정무장 사회의 의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안병규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행사는 개회사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ESG 실천 선포식이 열렸으며 2부 한마음 체육대회에서는 다양한 운동경기, 축하공연,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으로 나아가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비롯해 광주 사회복지의 성과는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 덕분에 가능했다”며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시장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향상되는 것이 기관 이용자들의 행복이 배가 되는 일인 만큼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도,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전남도가 지난 12일 사회적경제 정책과 제도를 알리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을 순천·여수 일원에서 실시했다.

교육에는 전남에서 선정된 청년 활동가, 시·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비롯한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사회적경제의 전반적 이해 및 지원 정책을 알리는 이론 교육과 우수 사회적기업인(㈜쿠키아, ㈜탈다구, 전남사회적경제채용지원센터 등 현장 교육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민선 8기 공약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 양성에 온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전남의 사회적경제를 이끌 우수 청년 인력을 양

성하고 지역에 정착시켜 지방소멸을 막고, 나아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간 2억6천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나해는 13명, 올해 4월 기준 20명의 청년 활동가를 양성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예비 사회적기업 컨설팅 등 분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활동가 양성 목표를 22명까지 늘리고 활동비를 전남도 생활임금 수준인 시간당 1만1천300원으로 인상했으며, 활동 분야를 사회적경제 행사 지원 및 현장체험, 기업 행정지원, 주민 교육 등 사회적경제 전반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재정 기자



무등산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캠페인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4월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와 함께 탐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캠페인은 ▲산불 초기 행동수칙 등 대처요령 교육 ▲공원 내 인화물질 반

입 ▲취사·소각·흡연 등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길거리 홍보 등이다.

또한 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도 이뤄졌다.

최진희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해 인화물질 반입, 취사·흡연 등 산불 위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정 기자

영광 백수파출소, 백수읍 노인대학서 정성치안 활동

영광경찰서 백수파출소는 “최근 백수읍 노인대학에 참석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이륜차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근절 등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에도 주력했다.

백수파출소 관계자는 “보호와 도움이 필요할 때 정성을 다해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이 믿고 신뢰하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광주서구 하나님의 교회, 생명나눔 헌혈릴레이 행사

광주서구 하나님의 교회는 “생명나눔의 일환으로 지난 11일 신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혈릴레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헌혈 행사에 참여한 최태양씨는 “30분 가량을 할애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돼 오히려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병은 하나님의 교회 목사는 “유월절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고자 혈액부족을 겪는 이들을 위해 성도들이 뜻을 모았다”며 “이웃들 모두 생명과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동수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장은



“1초의 정그림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에 하나님의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주성학 기자

장성교육지원청,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정기회

장성교육지원청은 “최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전남도 장성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의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정기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 단성중학교(장성중·장성여중) 남녀공학 체제 개편 안건을 협의했으며, 앞선 안건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 양성평등 교육 실현을 위해 채택했다.

나철원 위원장은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체제 개편은 지역사회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 학생, 학부모, 동문 모두 만족할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고 말했다.

위원들은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및 장성학생유지(하랑) 공영 격려를 위해 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장에 오는 5월31일 현장 연수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양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장성 민관산학 위원회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절실하며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